



NEWS LETTER



[한국음반산업협회 뉴스레터] ●●●
신규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지급신청 저작물에 대한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2017. 05. 08. [제 216 호]

위대함을 흉내내지 말라. 가장 자기다운 모스로 기꺼이 받아 들여라.

- 사무엘 콜리 -

공지사항

❑ “음반제작자” 여러분. 제작하신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 하셨나요?

<미분배 보상금 신청 안내>

- 홈페이지(<http://www.riak.or.kr>)에 접속하셔서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등에 대한 지급현황을 확인하시고, 신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 드립니다.
- 아이디 및 패스워드 발급/확인 및 등록여부 문의 : 콘텐츠팀 김가인 사원(02-3270-5933)

❑ 분배 일정 안내

- 2017년 3월분 신탁사용료 / 2017년 1분기 방송보상금 분배 예정 : 2017년 5월 25일(목)
- 분배 관련 문의 : 신탁사용료(박지혜 사원, 02-3270-5962)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김선영 팀장, 02-3270-5961)

❑ 가요심의 접수

-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는 음반제작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심의(KBS) 접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심의 접수 문의 : 박창현 차장, 김정수 사원(02-3270-5986~7)

❑ 한국음반산업협회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최근 소식과 신보 및 컴필, 이벤트 등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facebook) 주소 : <https://www.facebook.com/riakmusic>
- 트위터(twitter) 주소 : <https://twitter.com/riakmusic>

❑ 협회 주요 소식

협회 홈페이지(www.riak.or.kr)에 방문하시면 협회의 주요 경영공시 사항 및 회원 로그인을 통한 분배금액(신탁/보상금)확인 및 등록앨범조회 등 회원님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클리핑

- ❑ 세계 제패한 디즈니의 힘 '파워 IP'...한국도 가능할까? (2017. 5. 8. 한겨레)
- ❑ 스트리밍 덕에 글로벌 음악 산업 20년 만에 최대 수익 성장 (2017. 4. 26. 더 기어)
- ❑ [공감신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취향껏 선택해보자 (2017. 4. 27. 공감신문)
- ❑ 이젠 당당한 산업 'EDM' 수입 700 억원 DJ도 있네 (2017. 4. 28. 매일경제)
- ❑ '카카오의 반격' 동영상콘텐츠 자체제작에 올인 (2017. 5. 7. 파이낸셜뉴스)
- ❑ SK 플래닛, '멜론 인도네시아' 지분 매각...인니 음원시장 철수 (2017. 5. 7. 뉴스토마토)
- ❑ 양주일, NHN 벅스 고음질음원사업으로 만년 3위 탈출 시도 (2017. 5. 4. 비즈니스포스트)
- ❑ [뉴스인사이드] 음원차트 '불금'엔 이유가 있다 (2017. 5. 2. 스포츠동아)
- ❑ SKT "멜론을 왜 팔았을까..." (2017. 4. 29. 서울경제)
- ❑ 빅데이터 전성시대...음원부터 동영상까지 '맞춤형 콘텐츠' 추천 (2017. 4. 27. 키뉴스)
- ❑ 음량 균일화하는 음악 스트리밍...원음 왜곡 우려 (2017. 5. 7. 아시아경제)
- ❑ 페이스북, 돈은 별지만 불안 불안 (2017. 5. 8. 시사저널이코노미)
- ❑ 애플, 아이폰 판매 '부진' 앱스토어·음악으로 메웠다 (2017. 5. 3. 한국경제)
- ❑ 스포티파이, 블록체인 스타트업 '미디어체인 랩' 인수 (2017. 5. 2. 아이뉴스 24)
- ❑ 4차산업혁명 시대 준비 "콘텐츠 중심의 산업생태계 마련해야" (2017. 4. 27. NSP 통신)
- ❑ [Hot-Line] "CJ E&M, TV 광고 의존도 낮아져 긍정적" (2017. 5. 12. 매일경제)
- CJ E&M, '콘텐츠 강화+디지털 유통 확대'로 매출 고 (2017. 5. 11. 이투데이)
- ❑ 미디어 플랫폼의 정의 바꾸는 페이스북·애플·아마존 (2017. 5. 11. 매일경제)
- ❑ 디지털 음원시장 '오후 6시의 결투' (2017. 5. 15. 동아일보)
- ❑ 저작권자들"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 필요" (2017. 5. 14. 전자신문)

보고서, 발간자료, 알림 기타 등

- ❑ [KOCCA 이슈분석 17-02 호] 콘텐츠 기반 수출 확대를 위한 <쿨재팬> 정책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2017. 3. 17. 콘텐츠진흥원)

분리배출표시제도 관련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7월 01일부터 CD 케이스 등 합성수지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반제작자에게도 분리배출표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성수지포장재를 사용한 CD 케이스 및 포장 필름(바코드, 라벨 등이 부착된 경우에 한 함) 등에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하며, 법률 위반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분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 법률에 관하여 회원님들의 확인을 바라오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 바랍니다.

- 분리배출표시제도 : 한국환경공단 032-590-4205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분담금) : 한국환경공단 032-590-4199

“음반 표지” 이미지 및 서체 사용에 대한 안내

협회는 최근 신탁계약 및 보상등록 음반의 표지에 사용된 이미지(사진, 그림 등) 또는 서체(폰트)와 관련하여 해당 이미지 또는 서체의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는 자[업체 또는 대리인(법무법인)]들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수차례 수신하였으며, 해당 업체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라이선스 비용 및 손해배상금 등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원님들께서 직접 제작하시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디자인을 의뢰한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여 음반의 표지를 제작할 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피해를 회원님들께서 떠안게 되는 경우가 점차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음반 표지에 사용되는 이미지 또는 서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음반 표지의 저작권 침해가 의심·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인 사용중지(온라인의 경우

서비스 중지)와 함께 사용허락 받은 이미지, 서체 등이 사용된 음반 표지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전문업체에 음반 표지의 제작을 의뢰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업체가 허락받은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음반 표지의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o 관련문의 : 콘텐츠팀 3270-5936, 기획법무실 3270-5916

테이프 복각 음원의 서비스 관련 안내

회원님께서 과거에 테이프의 음원을 복각하여 MP3 음원 형태로 협회에 등록하여 주신 음원의 온라인 서비스 반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과거 회원님께서 일부 테이프의 음원을 MP3 파일로 등록하여 주신 앨범 중, 테이프의 A 면 · B 면에 있는 모든 곡을 하나의 MP3 파일로 전달해 주신 음원에 대하여, 테이프의 A 면 · B 면의 곡을 트랙별로 구분하여 CD 또는 MP3 파일 형태로 복각하여 재등록 해주시면 온라인 사이트 (멜론, 지니, 엠넷, 소리바다, 벅스 등)에 재등록해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재등록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 CD 또는 MP3 로 복각하시어 협회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o 콘텐츠팀 담당자 : 정정수(02-3270-5931), 하수정(02-3270-5936)

한국음반산업협회(RIAK) 신규 신탁음원



['천국의 계단 OST' 로 이름을 알린 '선유(Sun You)' 일본 발매 싱글 '聲(Koe)']

한국의 발라드 가수 SUN YOU (선유)가 신곡 「聲」(Koe) - "목소리"를 출시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률 베스트 3에 들어가는 "천국의 계단"삽입곡 「천국의 기억」、 「그것만은」을 노래하고, 현재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산의 땅이기도한 "와카야마현 쿠마모토"를 방문하고 느낀 점이나 그곳에서들은 많은 이야기로부터 완성 된 곡으로, 작사는 선유 본인이 담당하고 작곡은 함께 쿠마모토를 여행한 기타리스트 카지 요시히로가 담당해 제작했습니다.

한번 들으면 귀에 맴돌며 마음을 울리는 곡으로 완

성되어 있습니다. 선유가내는 소리, 연주자의 소리, 또한 거기에는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지탱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聲」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CCM가수 '최은'의 디지털 싱글 '평안해']

CCM가수 '최은'의 디지털 싱글 '평안해'가 발매되었다. 이번 앨범 '평안해'는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 서 있을 수조차 없었던 '최은'이 주님과 함께 이겨냈고 지금은 언제 그런 힘든 삶을 살았냐는 듯 평안한 미소와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 만들어졌다.

함께 문화사역을 하던 개그우먼 정지민이 최은을 보며 시편23편이 떠올랐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커다란 파도가 몰려 올때도 어두운 골짜기 지날 때에도"처럼 말씀을 토대로 작사해 나갔다. 거기에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주님내안에 내가 주안에 늘 평안해" 라는 그녀의 고백까지 위로되고 평안하

게 만드는 작사에, 가수 공희가 곡을 붙여 최은에게 선물했고, 멋지게 소화해내는 최은의 목소리까지 우연은 없음을, 모든걸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세상에 나온 디지털 싱글 '평안해'를 듣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바란다.

Arranged By Planning / Legal Department

- 본 뉴스 클리핑은 매주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뉴스 기사를 스크랩하여 게시하므로 협회는 본 뉴스 클리핑으로 발생하는 내용상 오류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 클리핑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협회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 클리핑은 주 1 회 E-Mail 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 수신을 추가로 원하시는 분은 news@riak.or.kr 로 신청 바랍니다.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news@riak.or.kr 로 회신을 주시면 수신거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 길 10, 7 층(상암동 더팬빌딩) | TEL : 02.3270.5900
| FAX : 02.711.9735 | Planning/Legal Department Team | TEL : 02.3270.5913 | E-MAIL : news@riak.or.kr

Copyright © RIAK All Rights Reserved